



힘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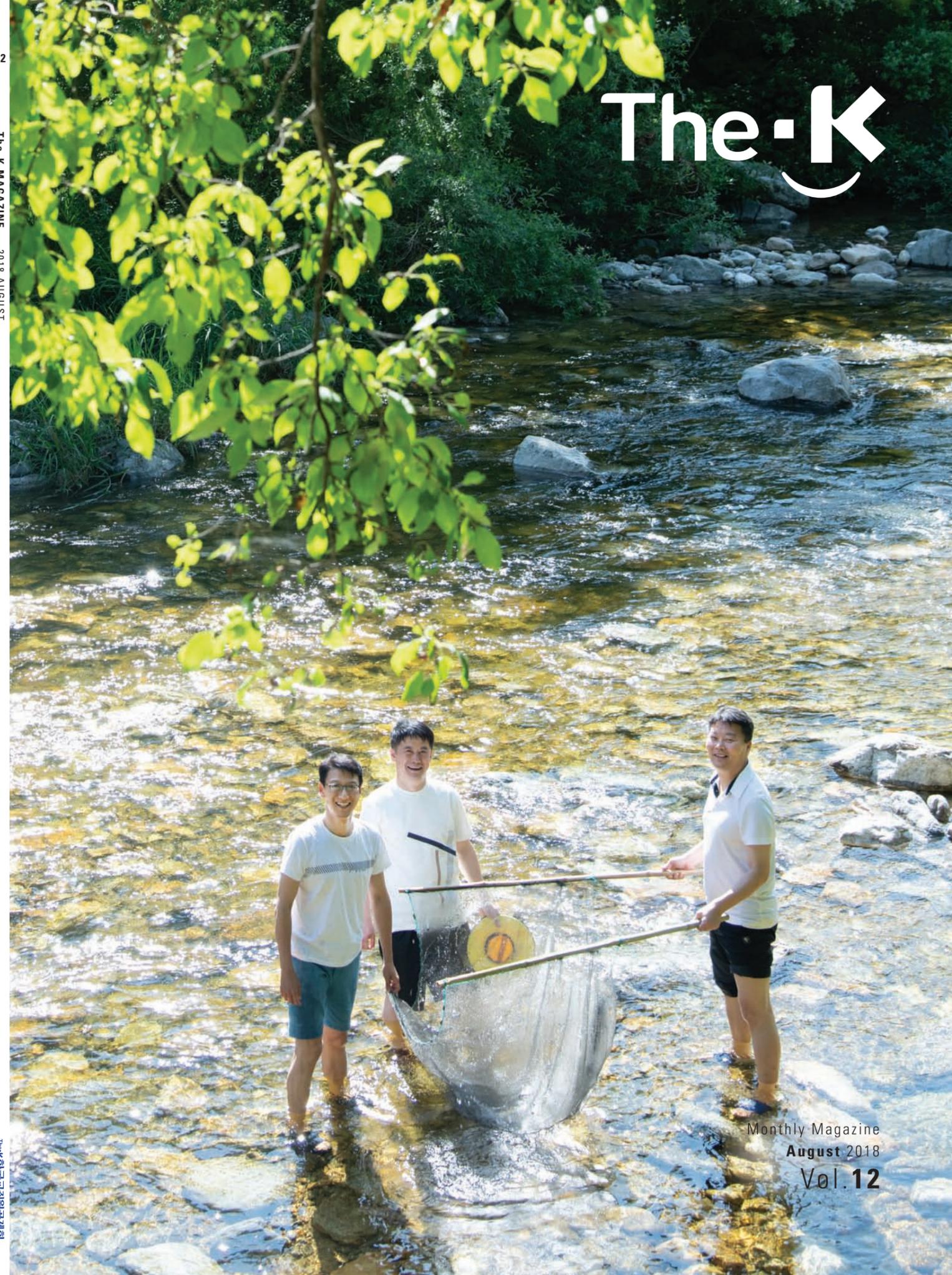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담: 1577-3993 및 시도지부



CONTENTS

2018 AUGUST VOL.12



4
여는 글
 여전히 아름다운, 여름 손님

6
Essay
 내가 찾은 초록빛 소확행
김선아 경기 수리교 교사

8
Inside Out
 '삶을 담는 그릇' 즐거운 나의 집

10
Interview
 소설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다시 보다
이기호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16
Interview
 따뜻한 노래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다
이현지 서울신서초 교사

22
아름다운 동행
 처음 그때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김영민 남해정보산업고 교사 &
오경진 울산여자상업고 교사 & **이선재** 김해한일여고 교사

30
먼 나라 교육 편지
 살림!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는 곳, 에티오피아
주태성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사

34
트렌드 Go Go
 문어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룡들의 전쟁

36
네오필리아
 한여름 낮밤의 낭만을 펼치다

38
브랜뉴 여행
 작은 섬이 주는 잔잔한 힐링
 일본 오키나와 세 개의 섬
 고하마지마, 다케토미지마, 미야코지마

44
아는 공간
 보물 창고처럼 숨어 있던
 인천 아카이브카페 빙고

48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50
재테크 팩토리
 여름휴가 시즌,
 알뜰 여행을 떠나보자!

52
The-K Focus
 숲에서의 치유, 그리고 다시 찾은 청춘
 The-K 은빛동행
 '홍천 숲 힐링 투어'

56
The-K Focus
 The-K 행복서비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강원 평창 진부고와 함께한 비보이 퍼포먼스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8월 즉석 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의 뜨거운 거리

The-K

VOL.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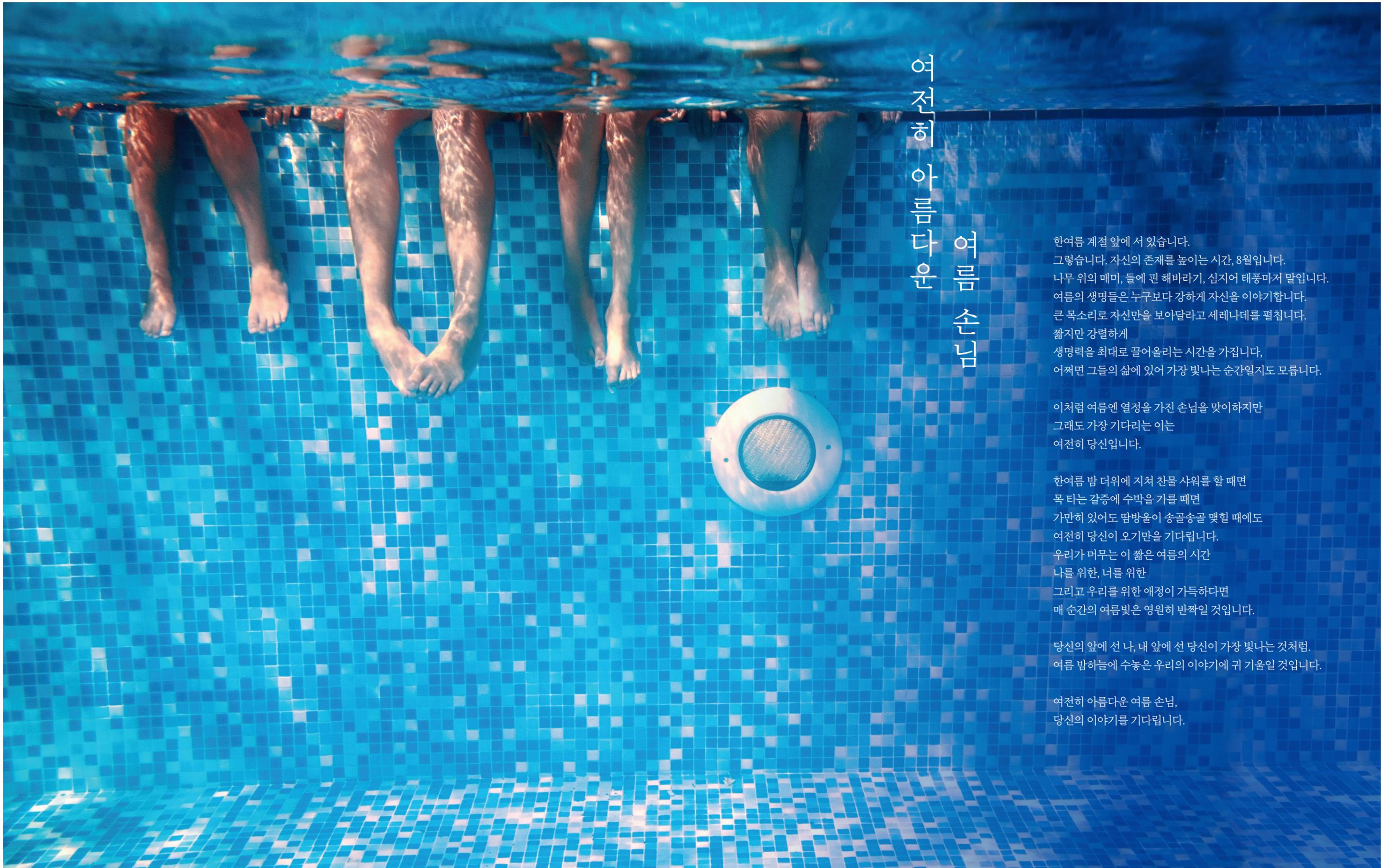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8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강나은 엄용선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genie@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안호성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여전히 아름다운 여름 손님

한여름 계절 앞에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시간, 8월입니다.
 나무 위의 매미, 들에 핀 해바라기, 심지어 태풍마저 말입니다.
 여름의 생명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만을 보아달라고 세레나데를 펼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생명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름엔 열정을 가진 손님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다리는 이는
 여전히 당신입니다.

한여름 밤 더위에 지쳐 찬물 샤워를 할 때면
 목 타는 갈증에 수박을 가를 때면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때에도
 여전히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짧은 여름의 시간
 나를 위한, 너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애정이 가득하다면
 매 순간의 여름빛은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

당신의 앞에 선 나, 내 앞에 선 당신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여름 밤하늘에 수놓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름 손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찾은 초록빛 소확행

식물 키우는 것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지는 5년 정도 되었다. 첫 발령지에서는 학급 환경 미화가 막막해 선배 교사들을 따라 화분으로 교실을 꾸미고는 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의욕을 따라오지 못했고, 연말이면 빈 화분을 돌려주며 머쓱해하던 일이 기억난다.

학교를 옮기고도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식물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도 한몫해, 아이들에게 작은 화분을 하나씩 맡게 했다. 반 아이들과 같은 수의 작고 다양한 화분이었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식물들의 상태를 살폈다. 아이들에게도 '잎이 두꺼운 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돼' '잎이 얇은 식물은 물을 좋아해' '흙을 만져봐서 마르면 물을 줘야 해' 등 마치 식물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조언했다. 나의 관심과 열정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해 연말에는 많은 화분을 뿌듯한 마음으로 돌려줄 수 있었다. 그중 몇몇 아이가 두고 간 화분이 있었는데 교실에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것 같아 고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두고 지켜본 지 얼마나 지났을까. 평범한 잎을 내던 다육식물에서 하트 모양의 새 잎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도 자주 안 주고 별 관심도 주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잘 살아 있네' 하는 생각으로 살펴보다가 발견한 하트 모양 잎. 물론 한 장뿐인 변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고 싶은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다가 문득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4년이나 나와 함께한 화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식물 키우는 것에 관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게 된 때가.

그 자신감은 집으로도 이어졌다. 트럭에서 식물을 파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얼른 달려나가 꽃향기 진한 치자나무를 샀고, 길 가다 화원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휴일 아침 일찍 잠에서 깨면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을 둘러보고 분갈이를 하느라 집 안을 온통 흙바닥으로 만들어놓기도 했다. 그 방면에는 재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내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초록 손가락'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다. 선물 받은 녹보수를 가지치기할 날에는 잘라낸 가지들이 아까워 물병에 꽂아놓았는데, 죽지 않고 몇 주를 버티더니 결국 뿌리가 났다. 웬만한 나무는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안 뒤 뿌리가 생긴 가지들까지 심어주느라 집 안의 화분 개수는 점점 늘어났다.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기고 나서는 양재동 꽃시장이나 화훼 단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봄이 막 시작되는 3월 초가 되면 치러야 할 의식처럼 되었다. 그곳에 가면 그해 유행한다는 새로운 식물을 만날 수 있고, 푸릇푸릇한 식물 속에서 봄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다 2년 전에는 대형 선인장을 키워보고 싶어서 큰맘 먹고 집에 들였다. 선인장이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만 자라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 뿌리 쪽이 물경했다. '처음 거금 주고 들인 식물인데...' 하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계속 두면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이 집에 있던 문구용 칼을 소독하고, 선인장을 뽑아 신문지 위에 누인 다음 뿌리를 포함한 물경한 부분을 완전히 잘라냈다. 심혈을 기울인 수술(?)이 끝난 뒤 '환자'를 작은 방으로 옮겼다. 신문지 위에 누인 채 바람이 통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생은 마치 부활을 기다리는 것 같이라며 놀렸다. 3주 정도 지났을까. 잘라낸 부분이 조금 마른 것 같아 화분에 꽂아두고는 날마다 살펴보았다. 나의 첫 '환자'는 신기하게도 무른 곳 없이 잘 버티고 있었고, 최근에는 궁금한 마음에 뿌리 쪽을 살펴봤는데 덩치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뿌리도 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선인장 사건 이후 나의 관심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도에서 진행되는 '조경가든대학' 과정을 찾아듣기도 하고, 타샤 할머니가 가꾸던 정원을 꿈꾸며 관련 책을 찾아 읽기도 했다. 식물을 구입해 키우던 열정은 씨앗으로 향해 단호박 씨를 버리지 못하고 흙에 심는 버릇이 생겼다. 바질이나 라벤더 화분에서 채취한 씨앗이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우면 내가 마치 생명을 탄생시킨 것처럼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이제는 아보카도를 먹으면 씨를 버리지 못한다. 아보카도 씨앗은 자두만큼이나 커서 버릴 때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흙 속에 반쯤 심어두고 물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 열대 식물 느낌이 물씬 나는 잎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을 버리는 것이 마치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싹이 나든 안 나든 일단 화분에 심고 본다. 로즈메리는 가지치기하면 꼭 물에 꽂아두는데, 며칠 뒤면 하얀 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기록할 수 없다. 바질을 키워 바질 페스토를 만들고, 방울토마토를 따다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면 농사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급자족의 기쁨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베란다에서 시작한 식물 키우기는 점점 규모가 커졌다. 운 좋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작은 텃밭이 있는데, 봄이 되면 적은 양이지만 당근, 비트, 방울토마토, 상추 같은 채소 씨앗을 심는다.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허브도 심어두고는 겨울이 다가오면 얼어 죽을까 전전긍긍하며 작은 비닐하우스를 해주는 것이 연중행사다. 이곳으로 이사 온 뒤 퇴근을 하면 텃밭에부터 들러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나 둘러보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라도 몇 포기 솟아낸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일과를 마치고 나면 머리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식물을 키울 때 내가 느낀 것이야말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품에서 이야기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단지 새로운 잎이 나거나 꽃이 피면, 씨앗에서 싹이 트거나 물에 꽂아놓은 줄기에서 뿌리가 나면 마치 내가 식물 키우기에 엄청난 소질이 있는 것 같은 성취감을 맛본다.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기쁨 때문이겠지만 당분간 나의 이 취미는 계속될 것 같다.



삶을 담은 그릇

즐거운 나의 집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공간, 바로 집입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집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을 꿈꿀 것입니다. 공제회원이 꿈꾸는 집은 무엇일까요? 공제회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기간 2018년 7월 2일 ~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고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4186명

성별	남성	30.3
	여성	69.7
	20대	11.3
	30대	36.3
	40대	29.6
연령	50대	17.2
	60대 이상	5.6
	미혼	28.6
결혼	기혼	71.4
	서울·경기·인천	42.6
거주 지역	부산·울산·경남	16.4
	대구·경북	12.1
	대전·충남·충북·세종	12.8
	광주·전남·전북	11.4
	강원·제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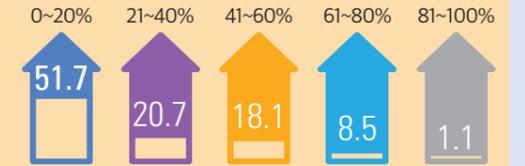
(단위: %)

(단위: %)

Q.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Q. 주택마련자금(구입·전세) 중 대출금 비율은 얼마입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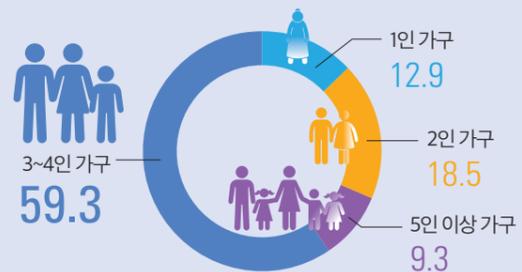


평균 26.10

Q.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Q.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인 가구	34.7	16.9	6.5	3.6	4.7
2인 가구	19.2	24.4	8.3	14.6	44.0
3~4인 가구	38.3	52.0	72.9	69.6	46.2
5인 이상 가구	7.8	6.7	12.3	12.2	5.1

Q.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유형은 무엇입니까?



20대 아파트 52.6,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24.8, 오피스텔 9.1, 단독주택 7.6, 기타 4.8, 주상복합 1.1

Q.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주택자	80.2	48.7	19.6	8.8	2.1
1주택자	18.3	44.8	65.3	72.4	76.9
2주택자 이상	1.5	6.5	15.1	18.9	20.9

Q. 취업 후 생애 첫 주택 구입까지 몇 년이 소요됐습니까? (주관식)

평균 9.05년

Q. 취업 후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주관식)



Q. '내 집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까?



Q.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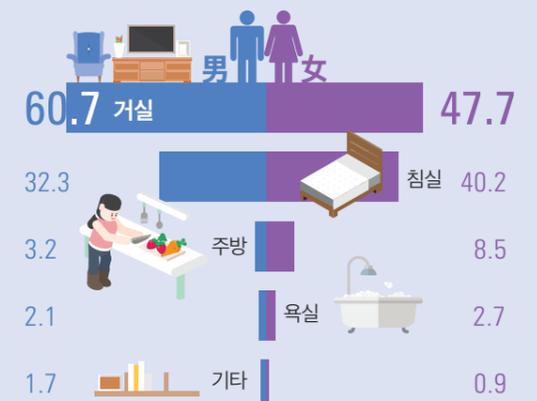
1위 주거 안정	52.4	투자 가치가 있어서	5.6
평생 살 곳 마련	15.7	직장, 학군 등의 이유	5.1
심리적 안정	9.6	집값이 더 오를까 봐	3.7
이사의 불편함 해소	7.7	기타	0.4

Q. 앞으로 거주할 집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 1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집 71.5
- 2위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집 28.5
- 3위 가사 부담이 줄어든 편리한 집 18.0
- 4위 임대 수입, 창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집 14.5
- 5위 육아, 취미 생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집 14.0

6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살 수 있는 집 12.7 / 7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집 2.2 / 8위 기타 0.4

Q.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Q.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주관식)



소설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다시 보다

이기호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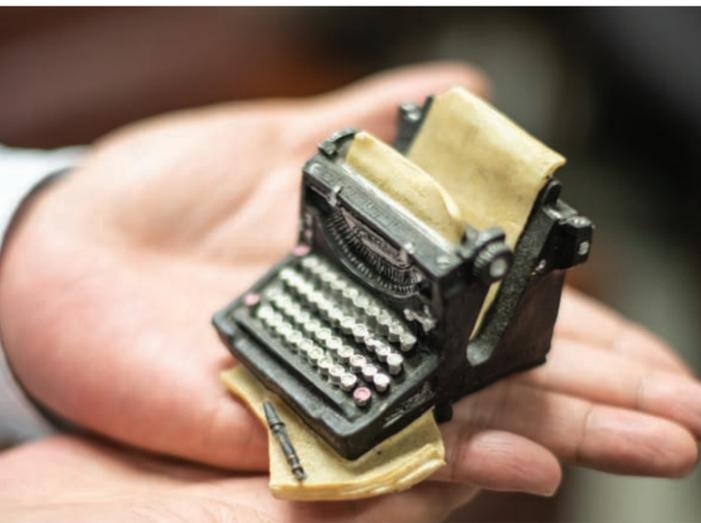
LEE



언젠가부터 긴 글을 읽는 것이 버거워졌다. 요즘 누가 소설을 읽느냐고 되묻는 이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소설가가 되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가 오히려 특별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화려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온 이력이 있다. 별 뜻 없이 흘러가는 일상도 소설가의 시선에 닿는 순간 이야기가 된다. 마치 시인이 꽃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오래전 이기호는 어린 시절, 이기호 교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야기였다. 그는 고백한다. 소설가 이기호의 이야기를 이룬 뿌리에 첫 번째 씨앗을 뿌려준 이는 할머니라고. 어릴 적만 해도 그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는 어린아이가 즐길 만한 놀 거리가 풍족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그날 하루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한국전쟁 실화나 기묘묘한 귀신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할머니의 입을 통해 매일 접하는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다 보니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큰 서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책 한 권을 사면 종이 가 닳을 만큼 읽고 또 읽었다. 어떤 단편소설은 첫 문장부터 끝

GI HO



문장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깊이 탐독했다.

신기하게도, 분명 같은 책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매번 느낌이 달랐다. 먼저는 이해되지 않던 내용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문장에 새롭게 시선이 머물렀다. 문장과 문장 사이 여백에 숨은 맥락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니,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솟았다. 이야기를 좋아하고 쓰고 싶은 바람에 대학 전공도 문예창작을 택했다.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대학에서 만난 동기들과 달리 자신은 너무도 평범해 보인 것. 굴곡진 인생과 내면의 상처를 멋진 문장으로 풀어내는 동기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였다. 가끔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외로 결심은 막다른 길에서 생겨났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면서 진로를 모색할 때, 소설가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 스스로 자질을 의심하던 그가 내린 선택은 '매일 쓰기'였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절실함이 설마 없었을까. 하지만 좋은 작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다독임으로 꾸준히 글을 썼다. 그렇게 글을 쓰고 고치고, 또 고쳐가며 매일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 경험 덕분에, 그는 소설가가 된다는 것은 재능의 영역이 아닌 시간의 영역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믿음은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과 문학을 공부하는 요즘에도 변함없다. 당시 경험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빛나는 재능이도 드러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절대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학생들이 입학해서 처음 쓴 소설은 사실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작품을 퇴고하고 많은 양의 독서를 하며 꾸준히 글을 쓰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학생들도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면 놀랄 만큼 글이 좋아져요. 좋은 글을 쓴다는 건 결국 각자의 시간에 달려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정보를 차단한 상태로 자신의 심연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그 후에는 삼자의 눈으로 자기 글을 바라보고 고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를 작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이기호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을 대단한 작가라 여기지 않는다. 겸손이 아닌 진심이다. 시간에 기대 자신을 단련해온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 인식.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소설가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힘이다. 등



단 20년이 넘는 지금도 그는 습작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일 쓴다'. 다만 소설가 초년생 시절과는 사정이 달라졌다. 임용 10년 차를 맞은 대학에서는 학과장을 맡아 다양한 행사와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집에서는 세 아이의 아빠로 육아에 힘써야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할 일이 많아질수록 소설가 이기호의 삶에 할당된 시간은 줄어들기만 한다. 가끔, 아니 자주 그는 교수와 소설가라는 직업은 쉽사리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성하며 균열을 내는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선생은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직종이고 제자들이 그 가치에서 이탈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문학 선생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힘들고 고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부딪힐 때가 많아 교수 임용 초반에는 버거운 마음도 컸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 않죠."

작가의 명함을 가진 교수로 살아가겠노라 진작에 마음먹었다 라면, 이러한 갈등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작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반성하며 작가의 존재와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지난 5월 출간한 신작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다. 일곱 편의 소설을 묶은 이 소설집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환대란 가능한 것인지 묻는다. 이는 스스로 거듭 되물은 질문의 풀이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소설의 제목에는 모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최미진은 어디로> <나정만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봄>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등. '작가 이기호' 역시 화자로 등장한다. 그렇게 소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미묘하게 흔든다. 소설에 등장한 그와 닮은 인물들이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가혹시 실화는 아닐지 궁금증까지 일게 하면서.

"제 모습을 숨긴 채 삼자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내려다보면서 글을 쓰는 것이 언젠가부터 위선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번쯤 툭 터놓고 작가 이기호의 모습이 소설의 서브 인물처럼 등장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고민이 아니라 2018년 무렵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여겨지길 바랐습니다. 그런 고민을 독자들과 같이 해보고 싶었고요."

<이기호의 말> 역시 소설집 전체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일종의 속임수처럼 배치되어 있다. 평론가의 해설 뒷부분에 글을 삽입

해 기존 소설집 구성에서는 명백히 작가의 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소설인지 실화인지 헷갈린다. 그는 이에 대한 해석마저도 독자의 몫으로 돌리며 분명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그가 글로 기록한 대로, "소설에 등장하는 '이기호'와 소설을 쓰는 '이기호' 사이에는 과연 어떤 벽이 세워져 있는가?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개별적이며 고유한 영혼을 지닌 인물인가?" 궁금했던 까닭이다.

도무지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들. 우리는 소설로도 책으로도 배울 수 없다. 그는 글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라 말한다.

이기호와 소설 쓰는 학생들

책을 다시 읽듯, 그는 자신의 삶도 매번 다시 시작하는 시도를 잊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도 소시민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아주 작은 실천이 견고한 세상에 희망을 향한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바람으로. "제가 젊은 세대일 때 '사회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는 왜 자기의 소시민적 욕망만 쟁길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딱 그 나이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 나이로나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일 외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가깝게는 제가 사는 동네의 소소하고 작은 공동체를 위한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이라 말했지만 어쩌면 진행형일지도 모른다.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비교적 젊은 교수에 해당하는 그는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과 나는 깊은 감정적 교류는 두터운 신뢰로 돌아왔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해오는 제자들도 적지 않다.

“광주대는 학생 상담이 무척 중요해요. 지난 1학기에 학생 대부분과 대화를 나눴죠. 처한 환경도 고민의 색깔도 다 다른데, 제가 상담하기 좀 더 나은 점은 학생들의 글을 접한다는 겁니다. 허구든 사실이든 글에는 그 친구들이 지닌 내면의 조각들이 드러나거든요.”

학생을 이해하는 진폭이 넓기에,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적잖이 크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어찌 됐든 평가를 동반하는 일. 하지만 문학과 성적으로 줄 세우기는 어울리지 않는 일 이기에, 그는 오히려 학생의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설령 상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기준은 그 학생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다.

이기호와 나

이 기준은 이기호 교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그가 생각하는 작가의 유일한 진정성이란 이전과 다른 작품을 쓰는 것. 소설가는 끊임없이 소설이라는 집을 짓고 부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소설은 시대정신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관없이 소설을 쓸 수 없죠. 1930년대에 작가들과 1950년대 작가들의 세계가 다른 것처럼, 2013년에 낸 소설과 2018년에 발표한 소설의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상처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색하며 고민하는 것 역시 작가의 책무. 그렇기에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가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완전한 허구는 아닐 것이다. 그 역시 이 사회 어딘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 에피소드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한 사람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며 한 사람의 일상은 한 편의 소설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를 증명하는 몇 갈래의 관찰과 해석이 이기호 교수의 소설에 있다.



“제가 젊은 세대일 때 ‘사회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는 왜 자기의 소시민적 욕망만 챙길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딱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일 외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가깝게는 제가 사는 동네의 소소하고 작은 공동체를 위한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굴(Gyu)의 노래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노래 '떡볶이에 튀김범벅'에서는 "학원 숙제, 엄마 잔소리, 스트레스 나도 많다고! 맛있게 툭툭하고 툭툭 털어내는 거야"라며 분식집에서 수다 떠는 아이들이 있고, '안녕, 호두'에서는 "어른이 되었다고 마음이 굳는 건 정말로 싫어. 딱딱한 껍데기 속 부드러운 마음 나도 간직할래. 호두 너처럼"이라며 겉으로 강하지만 속은 다정다감함을 간직하고픈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생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 굴의 정체가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이현지 교사이기 때문이다.

LEE HYEO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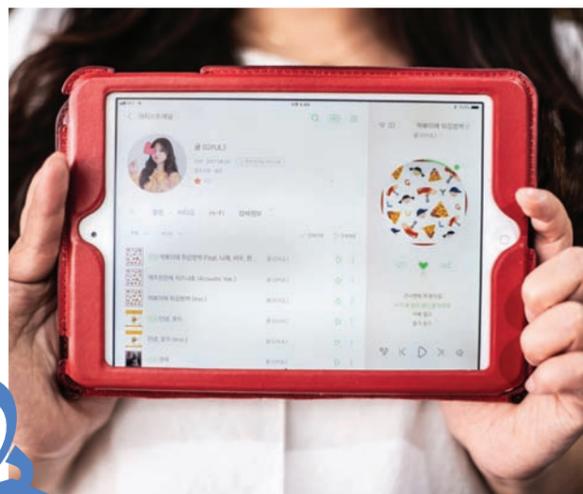
따뜻한 노래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다



이현지 서울신서초 교사



“아이들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사랑을 만나’ 싶을 정도로 고마워요. 또 제가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 노래가 아이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한 선생님,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떡볶이에 튀김범벅’이 된 ‘맥주 한 잔에 치즈 나쵸’

이현지 교사이자 싱어송라이터 굴(Gyu)은 지난 6월 19일, ‘떡볶이에 튀김범벅’이라는 노래로 정식 음원 발매를 마쳤다. 사실 ‘떡볶이에 튀김범벅’은 ‘맥주 한 잔에 치즈 나쵸’의 어린이 버전이다. 이전에 발매한 음원 ‘맥주 한 잔에 치즈 나쵸’가 어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내용이었다면, ‘떡볶이에 튀김범벅’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

“이전에 발매한 ‘맥주 한 잔에 치즈 나쵸’를 아이들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다른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라고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이 노래를 만들었죠.”

가사에는 아이들의 입김이 가득 들어갔다. ‘맥주 한 잔에 치즈 나쵸’ 가사에 나오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빈 칸으로 두고, 아이들이 평소 생각하는 스트레스와 해소법을 써 보라 하자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이 나왔다. 이현지 교사는 이를 가사에 적극 반영했다. 아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현지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녹음을 하고, 그 노래가 음원으로 나오는 과정까지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떡볶이에 튀김범벅’을 부를 사람을 모집하자 무려 60~70명의 아이가 모였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오디션을 봤어요. 음정, 박자를 맞출 수 있는지도 중요했지만 열정과 음색을 고려했죠.”

그 결과 4학년인 은지, 서영, 근렬, 나혜, 현채, 서우. 총 6명의 아이가 ‘떡볶이에 튀김범벅’을 부르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한두 시간씩 모여서 연습을 이어갔고, 함께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진행했다.

“녹음실에 처음 가봐서 모두 다 신기했어요.” “녹음하는 곳이 신기했어요.” “헤드폰이랑 마이크도 써볼 수 있었어요.”

근렬이와 서우에게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현채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한 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또 나혜는 마지막 연습이 끝나고 함께 먹은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다고, 서우는 노래를 잘못 부를까봐 조마조마했다고 밝혔다. 은지는 우연히 집 앞 놀이터에서 ‘떡볶이에 튀김범벅’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가장 뿌듯했다고. 6명

의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녹음과 음원 발매에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

감골농장과 깡깡들

이현지 교사는 팬 카페도 있다. ‘감골농장과 깡깡들’이라는 감쪽한 이름의 팬 카페는 ‘선생님이 굴이면 우리는 굴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은 깡깡들’이라며 이현지 교사의 제자이자 팬인 아이들이 만든 것. 아이들은 운영진도 겸하며 회원 노릇을 톡톡히 한다. 가끔 그녀에게 다가와 ‘선생님, 저도 깡깡이에요’라고 수줍게 고백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사랑을 만나’ 싶을 정도로 고마워요. 또 제가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 노래가 아이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한 선생님,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굴쌤’이라 불리며 ‘위로가 되어주는 선생님’ ‘고민을 톡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된 이현지 교사. 아직 교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교생실습을 했을 때부터 오랜 기간 연락을 해오는 제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온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현지 교사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꿈을 찾아 태권도 선수가 되거나 요리학교에 입학했다고, 혹은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녀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어쩌면 날라리였을지도 몰라요.(웃음)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였달까. 그래서인지 저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교육관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교사지만 단순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저만의 소통법을 좋아해주는 학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만큼 다른 교사보다 아이들에게 소홀하지 않을까?’ ‘괜히 아이들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지는 않을까?’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당연히 이해가 가죠.”

이현지 교사는 이러한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다양한 연수나 수업을 찾아가는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 수업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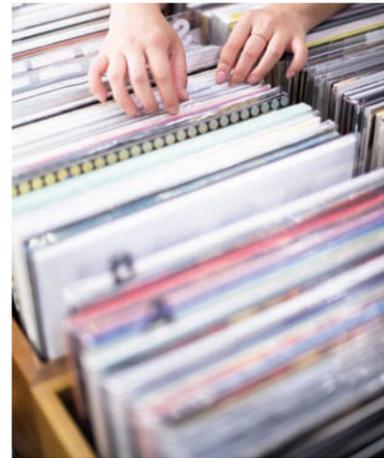
음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다

2017년 3월 기간제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현지 교사는 올해 9월 정식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 이뤄지는 순간을 앞두고 그녀는 기대감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정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제는 진득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벌써부터 어떤 아이들과 함께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기간제 교사다 보니 여건이 부족해 아이들과 하고 싶은 것을 미뤄 두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지 교사는 정식 발령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 우선 가장 가까운 미래에는 동요를 작곡해서 창작동요제에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퇴근 후 밤늦게 까지 피아노와 미디 학원을 다니며 실력을 갈고닦는 것도 그때 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교육과정에 음악을 녹여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요. 저뿐 아니라 극본,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긍정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작곡에 관심을 갖는 만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더욱 재밌고 풍성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어 시간에는 맞춤법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과 부르며 맞춤법을 익히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작곡을 다양한 교과목에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은 더 생각해봐야죠.”

이현지 교사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어린이 뮤지컬 제작이다. 대학생 시절 뮤지컬에 빠져 아마추어 극단에 참여했던 그녀는 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제작을 꿈꾸게 되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요. 저뿐 아니라 극본,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선생님과 함께 긍정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선생님과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선생님. 이처럼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교사로서 최고의 자질이라고 여기는 이현지 교사. 새로운 시작점에 선 그녀의 발걸음이 사랑스럽다.



처음 그때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 우리의 신나는 여름 이야기

'친구'와 '추억'. 두 단어가 지닌 의미는 인생에 있어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 친구가 없는 삶, 추억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테니. 20세에 첫 만남 이후 현재 53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잘 묵혀 발효시킨 우정을 푸짐하게 꺼내 든 세 청년,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세 교사와의 만남은 그래서 더없이 유쾌하고 행복했다.



33년 우정을 만나다

하필 장마 기간이었다. 매일매일 일기 예보를 들여다보면서 고민했지만 시간을 옮기는 것도, 다시 일정을 잡는 것도 무엇 하나 녹록지 않았다. 김영민 남해정보산업고 교사와 이선재 김해한일여고 교사, 오경진 울산여자상업고 교사는 세차게 후려치는 장대비를 뚫고 오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됐다. 연신 미안해하며 차에서 내리는 세 교사의 얼굴에는 뜻밖에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지난 2월 제주도 여행 이후 오랜만에 함께 뭉친 행복이 그야말로 얼굴에서 뽀뽀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는 다섯 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수다를 나누었다는 세 사람에게서는 수학여행을 온 듯한 설렘이 가득했다. 일탈을 꿈꾸는 고교생처럼 짜릿한 흥분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세 친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강원 평창에 가면 반드시 들러봐야 하는 대표 관광지인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한여름이지만 무성한 녹음과 숲 내음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선재 김해한일여고 교사 & 오경진 울산여자상업고 교사 & 김영민 남해정보산업고 교사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나로서 온전히 바라봐주는 관계,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가 불러내도 기꺼이 달려 나오는 또 다른 가족.”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전나무 숲길이 풍기는 향기는 진하다진했다. 중간중간 놓인 숲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형물, 쪼르르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 서서 관광객을 뵈히 쳐다보는 청설모, 전나무에서 풍기는 특유의 청량함... 거기에 세 교사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뒤섞이니 숲길은 또 다른 생동감과 활력을 얻고 있었다.

뒤따라 걸으며 세 사람의 이야기에 종긋 귀를 기울였다. 지리산에서의 추억, 30년 전 한라산에서 겪은 한파, 수업 중 의기투합해 불쑥 버너와 코펠을 들고 떠난 여행... 지난 시간이 소환되어 알록달록 모이고 이를 다시 곱게 꿰매니 눈부시게 커다란 보자기가 된다. 세 교사를 둘러싼 우정은 그렇게 옛 시간을 지나다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고 있었다.

네가 있어 더 행복한 인생

산책 외중에 기어코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많던 사람이 순식간에 마법처럼 사라지고, 전나무 숲에는 오직 세 친구만이 남았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굵은 빗물을 동그랗게 모은 손바

가지에 담아도 보고 팔짝팔짝 뛰어 달아나는 연둛빛 개구리를 보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다. 세상이 온통 음악 같은 빗소리로 가득하니 그 여운과 감상 또한 기막혔다.

“우리 셋은 사범대에서 신입생으로 만났어요. 사범대의 특성상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으니 살기(?) 위해 뭉친 게 출발이죠. 하하하.”

세 친구는 33년 전부터 참 많이 달랐지만 닮아 있었다고 했다. 이선재 교사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올곧고 순박한, 법 없이도 살 친구였고, 오경진 교사는 있는 듯 없는 듯 종일 강의실 구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용한 인물이었다. 아름다운 동행에 사연을 신성한 김영민 교사는 “주변에서 우리를 참 신기하게 봤어요. 제각각 색깔이 다른데 그 외중에 어울려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걸 희한해했죠. 돌이켜보면 대학 생활 추억의 대부분은 우리가 주고받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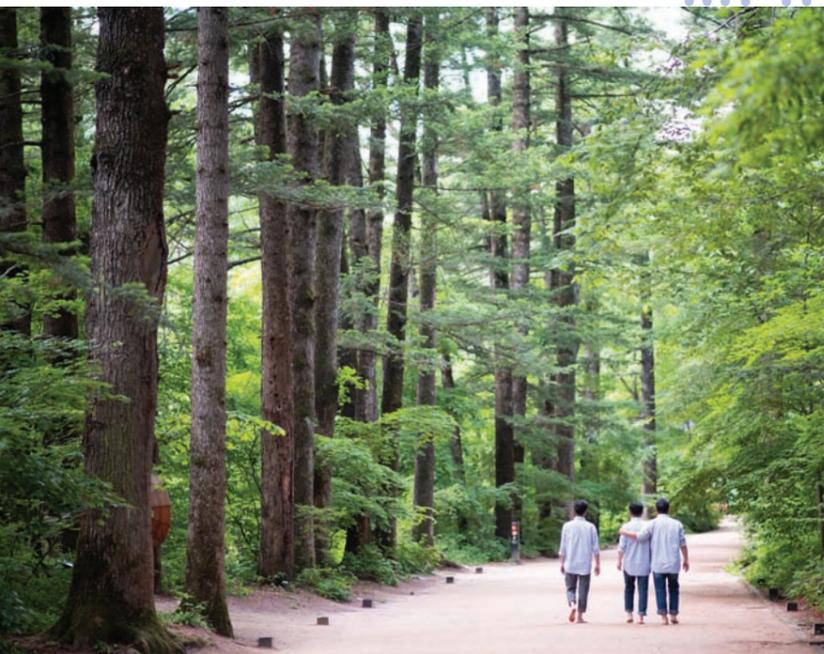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그치지 않자 촬영은 그만 접기로 했다. ‘아름다운 동행’ 촬영 사상 처음 있는 일.

빗속을 뚫고 경중경중 뛰어가는 세 교사의 뒷모습이 마치 스무 살 청년의 그것처럼 싱그럽고 가벼워 보였다.

다음 날 새벽, 걱정하면서 창문 커튼을 열자 거짓말처럼 새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햇살의 농도가 짙은 게 하루가 꽤 더울 것임을 예고했다.

숙소에서 벗어나 일행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사천 해변이다. 쿵 찌르면 파란 물이 주르르 쏟아질 것처럼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잇닿아 있는 이곳에 이르자 세 친구는 약속이나 한 듯 함성을 지르며 모래사장가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태양은 뜨겁지만 물 앞에 서니 주춤주춤. 그러나 바짓단을 돌돌 걸어 올리고 기마전 태세를 취하는 친구들의 유쾌함에 주변 관광객의 이목까지 단숨에 끌렸다.

딱 3인 3색이다. 웃고 떠들며 신나게 노는 외중에도 각자의 개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선재 교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친구들을 세심하게 챙겼고, 오경진 교사는 ‘과거 조용한 소년 티를 벗고’ 입만 열면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김영민 교사는 든든하게 들썩이는 분위기의 중심을 잡았다.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 한바탕 뛰어놀았으니 당연히 시원한 음료가 그리울 때였다. 인근에 위치한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공장은 다 같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에 근사한 최적의 장소다. 맞춤형처럼 잘 어울리는 친구 셋이 모여 바다를 배경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기분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내고 또 같은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이야기의 화두는 늘 그때그때 바뀌어 왔어요.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고민, 자식의 선택과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 이후 삶에 대한 고민까지 그야말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지하면서 걸어온 거죠. 얼마 전 셋이서 함께 한 제주도 여행도 참 좋았어요.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도 열심히 해줬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세 사람의 우정이 33년간 변함없이 이어져온 것은 아니다. 각자 삶 때문에 연락이 끊긴 적도 있고, 몇 달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지낸 시간도 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내가 부르면 언제든 찾아와줄 친구임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대화 중에 반주처럼 끼어드는 세 교사의 웃음 소리가 막걸리처럼 구수하다.

우정은 영원하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어제 비 때문에 미처 즐기지 못한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꽤 길게, 좀 더 여유롭게 산책길을 누렸다. 중간에 애완 앵무새 세 마리와 함께 숲을 찾은 가족을 만나 앵무새와 기념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태어나



나의 천성적 우울한 습성을 고쳐 청춘 시절을 다치지 않고 신선하게, 새벽처럼 유지해준 것은 결국 우정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남자 사이의 성실하고 훌륭한 우정만큼 멋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언젠가 고독할 때, 청춘의 향수가 나를 엄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학창 시절의 우정 때문일 것이다.
-H. 헤세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오경진 울산여자상업고 교사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영민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고, 좋은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교육원공제회 측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서 기마전을 한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 순간 두 교사가 "네가 위에 올라갔으니깐 그렇지!"라고 말하자 일동 폭소). 어린 시절 추억까지 소환할 수 있어서 무척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셋이 함께 쌓아온 추억이 많았는데, 1박 2일간 만든 즐거웠던 기억만큼 앞으로 도 셋이서 좋은 만남과 여행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민 남해정보산업고 교사

우연히 '아름다운 동행' 기사를 보고 별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늘 마음에 두고 지내는 친구들과 평생 남을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든 것 같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정 중에 즐긴 계곡 물놀이는 압권이었어요. 동심으로 돌아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즐겼는데, 대학 시절 경남 사천의 중선리에 놀러갔을 때 이후 30여 년 만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경진이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고, 예전부터 운전이며 뒷정리며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선재에게는 남은 30년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선재 김해한일여고 교사

1박 2일 여행 소감요? 짜증 나는 30년! 짜증 날 30년! (일동 폭소) 사실 저는 촬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무척 즐거웠습니다. 모든 여정이 다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앵무새를 머리에 얹고 사진을 찍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영민이는 마음 좀 편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경진이와는 오랜만에 모든 자주 보든 스스럼없는 귀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처음으로 머리 위에 앵무새를 얹어본 세 친구는 그야말로 어쩔 줄 모르는 모양새. 새를 잠시 맡긴 아들이 애처럼 찢찢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계획하지 않은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눈에 차는 어느 곳에 불쑥 차를 세우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젊은 시절에나 가능했던 이 즉흥 여정에 웬 계곡이 눈에 들어오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차를 멈췄다. 혹시 몰라 준비한 족대와 다슬기잡이 수경, 통발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앗, 차가워!" "아직 물이 찬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계곡물 속으로 들어가는 세 친구. 하지만 족대를 흔드는 순간부터 33년 전 뜨거운 추억이 온몸을 덮쳐왔다. 연신 족대를 물속에서 들어 올리는가 하면, 통발을 내밀 준비를 하는 세 교사를 보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맑디맑은 계곡물에 엉덩이를 한껏 뒤로 뻗 채 허리를 굽혀 물속에서 다슬기를 찾는 이들의 모습은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그 자체였다.

장난기 가득한 그 시절로 되돌아갔는데 어찌 계곡에서 온전한 앵무새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슬기잡이 수경을 바가지 삼은 세 교사가 서로를 향해 폭풍 물세례를 퍼붓기 시작

했다. 도망가는 친구를 끝까지 추격해 물을 뿌리고 마침내 도망치지 못하게 서로 어깨를 걸고 머리까지 입수하니 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온 대학 시절 그 시간은 그저 눈물 나게 웃고 가슴 아리게 행복한 여름 그 자체였다.

33년 동안, 세 친구는 그중 누군가가 아프면 꼭 병원에 찾아갔다. 아픈 친구에게 피가 부족하면 지인들까지 데리고 가 수혈을 하기도 했다. 잠시 연락이 끊긴 친구를 찾아 해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발견해내기도 했다. 부모의 상에 찾아가 더 오래 머물러주지 못함을 미안해했고, 서로 반려자를 맞았을 때 사회를 봐주기도 했다. 그렇게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서로를 가리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나로서 온전히 바라봐주는 관계,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가 불려내도 기꺼이 달려나오는 또 다른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한없이 부럽게 느껴졌다.

빗줄기 속에서도, 퇴약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내온 세 친구. 이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모두가 계곡물에 씻은 빨간 사과를 우적거리며 막걸리 잔을 맞부딪쳤다. 사랑과 우정을 그대에게!



세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월정사 주차장 인근 금강교에서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1km 남짓 되는 흙길을 일컫는다. 흙이 고와 맨발로 걷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으며 천년 고찰 월정사와 상원사를 함께 품고 있어 사시사철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수령이 80년 이상 된 전나무 1800여 그루 덕분에 피톤치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어 심신의 힐링을 찾기에 그만이다.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사천해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하리에 있는 해변. 경포해변과 연곡해변 사이에 있으며, 백사장 길이는 약 300m다. 모래가 곱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가족 단위 피서객이 즐겨 찾으며,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물놀이는 물론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인근에 경포도립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지가 모여 있으며 스낵스쿠버 동호인도 찾는다. 언제나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횡집도 즐기니 덩달아 입속까지 즐거워진다.

📍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877

🕒 해수욕장 개장 시기 7-8월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공장

일본에서 나고 자라 커피를 배운 박이추 씨가 만든 카페다. 1988년 한국으로 건너와 당시 대세이던 인스턴트커피가 아닌, 원두를 직접 볶아 핸드 드립으로 내려주는 보헤미안 커피를 소개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커피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바리스타 1세대로 불리며 여전히 직접 원두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그의 커피 맛이 궁금하다면 이곳에 꼭 들러볼 일이다. 박이추 씨가 강릉에 최초로 자리 잡은 '보헤미안 영진'도 차로 8분 거리에 있다.

📍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107

☎ 033-642-6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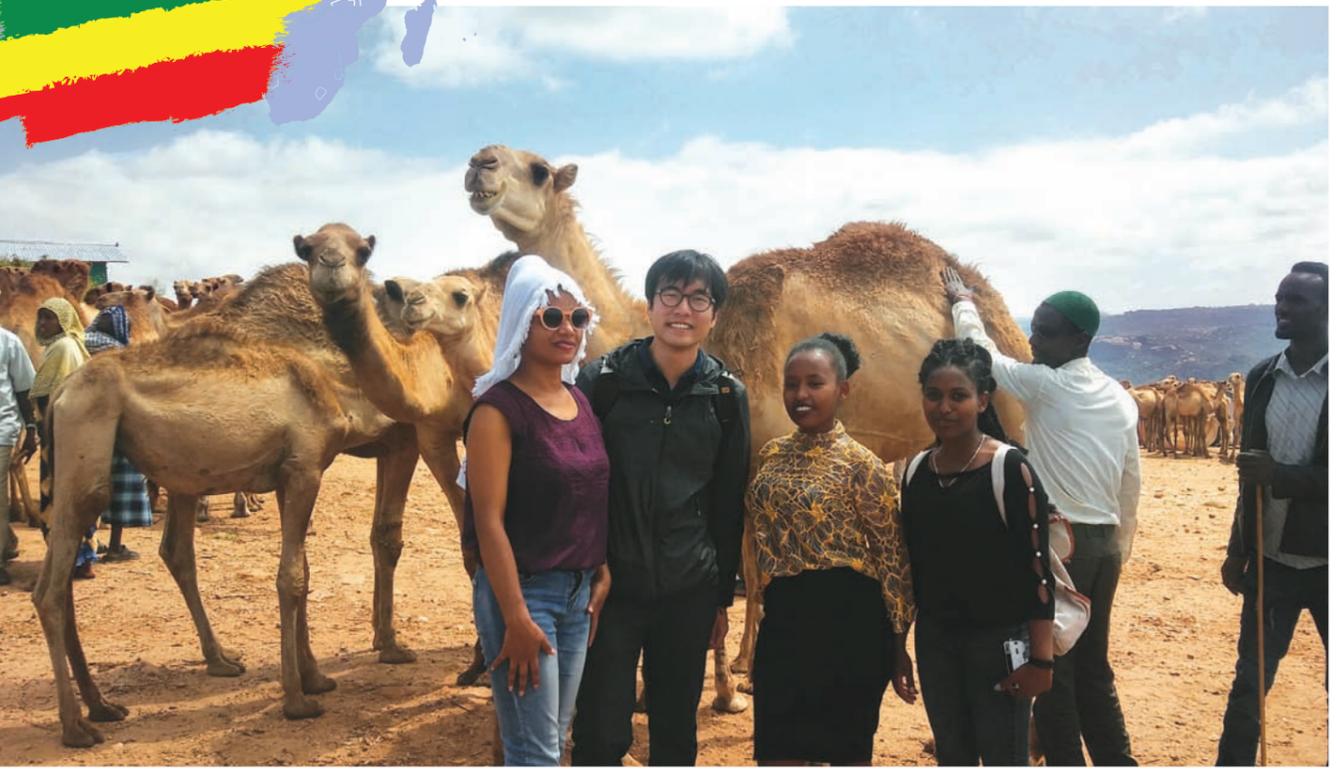
살림!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는 곳, 에티오피아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제가 만난 사람 대부분은 가장 먼저 ‘커피’를 떠올립니다. 그다음은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

에티오피아는 80개 이상의 부족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언어도 종족별로 다양합니다. 주요 언어로는 암하라 종족의 언어인 암하리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억 명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 대국입니다. 아프리카연합(AU) 본부와 다양한 국제기구(UN 등)의 아프리카 본부가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해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유명합니다. 저도 현지인처럼 이곳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커피콩을 집에서 볶아 커피를 끓여 마십니다. 한국에서 마시는 방법과 사뭇 다른데, 신선하고 흠이 없는 생콩을 깨끗이 씻어 얇은 팬에 볶은 후 절구 같은 것에 빵아 호리병 모양의 전통 주전자에 넣어 끓이는 방법입니다. 기계로 내리는 것보다 진하고 조금 짙은맛도 있지만 신선한 커피 향은 역시 커피 최대 생산국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호에 따라 ‘테나담’이라는 허브를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허브의 향긋함이 커피의 짙은맛을 감싸줘 저도 좋아합니다.

파견국의 교육청 업무가 궁금하시나요?

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살며, 아디스아바바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 관련 프로젝트를 도우며, 한국의 선진 ICT 기술과 스마트 교육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억에 남는 업무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 해외 파견 사업’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의 ‘WFK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KUCSS 한국 대학생 봉사단은 2주 동안 고등학교에서 ICT와 과학 교육 봉사, 코테베 대학교에서 ICT 경험 및 문화 교류, 교육청에서 과학교사 연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마을 카페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등의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코테베 대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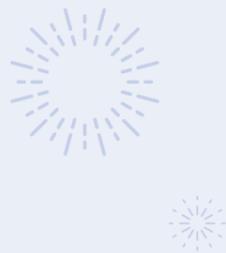


ICT 경험 공유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대학생이 함께 ICT 기술(AR, VR, IOT 등)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양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태권도와 전통 놀이, 에티오피아 전통 춤 등 문화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토론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이곳의 수백 명 학생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양국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고,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은 전통 춤을 한 달가량 연습해서 무대에 올랐지만,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공연 바로 직전에 춤출 학생들을 선발해서 즉흥적으로 전통 춤을 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춤은 훌륭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야 하고, 에티오피아는 준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합니다.

교육청에서 과학교사 연수를 진행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에티오피아 교사들은 실험실과 실험 도구 부족, 실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과학 시간에 실험 수업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 온 현직 과학교사와 일본 JICA에서 온 현직 일본인 교사가 과학 실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JICA 소속 일본 파견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일 공동 연수가 가능했다는 점은 저에게도 큰 보람과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학습자에게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비를 지불하고 교육받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현지 학교는 연수가 필요했지만, 한국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인 직장 동료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교사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파견자가 직접 가져온 예산이 아닌, 현지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그곳의 사람들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잘 맞는 곳입니다. 저도 2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계속 있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디서든 커피를 즐기고 정 많은 이곳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제 인생에서의 특별한 시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볼레 공항에 처음 도착한 그날과는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처음 자리 잡은 도시 한구석 동네에서 저희 가족을 모르는 이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번은 동네 작은 커피 가게에서 가족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한 청년이 저희가 마신 커피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의아해하며 우리를 아냐고 물었더니 동네에서 우리 가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긴장한 순간들이 씻기는 듯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곳 사람들이 금세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 동안 이곳 사람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야겠습니다.



주태성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사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온 가족과 함께 '교육의 평등'이라는 거룩한 꿈을 실현해보고자 에티오피아에 당도. 현실은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무책임한 가장.



문어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룡들의 전쟁

문어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룡들의 전쟁

거대한 문어가 수만 개의 다리로 콘텐츠의 바다를 휘젓고 있다. 전 세계 1억 25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거느린 영상 플랫폼 넷플릭스가 TV, 스마트폰, 영화관을 습격하고 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 바다를 지배해온 고래와 공룡이 몸을 합쳤다. 거대 콘텐츠 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TV, 영화 미디어 제국인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것이다. 이제 마블의 <어벤저스> 히어로, 막강한 팬덤의 <스타워즈> 시리즈,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이 하나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괴수 대전쟁은 바다 건너 구경거리가 아니다. 한국의 안방, 스마트폰, 영화관 역시 거대한 콘텐츠 태풍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N은 처음 동네 어귀 만화방이었다. “만화를 빌려 읽으세요. 비싼 책을 직접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N은 비디오 대여점이 되었다.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의 녹화 테이프를 빌려주었다. “이제 집에 빌려가세요. 온 가족이 몇 번이고 볼 수 있어요.” 다시 N은 IPTV가 되었다. “가게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어요. 딴 사람이 먼저 빌려갔다고 순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거실의 TV로 원하는 영화, 드라마, 예능을 고화질로 전송받아 보세요.” 넷플릭스는 이런 N 중 하나였다. 처음엔 DVD 대여업체였고, 이어 비디오 스트리밍업체로 변신했다. 누군가 만든 콘텐츠를 모아 싼값에 빌려주는 대여업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최말단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까웠다. 그러나 어느덧 넷플릭스는 콘텐츠 생태계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다.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길목을 장악하더니 직접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

했다. 드라마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극장용 영화 <옥자> 등은 연이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는 영어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좌지우지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영화, TV 드라마, 음악 시장에 문을 활짝 열어둔 만큼 문화적 거리가 멀지 않다. 넷플릭스로서는 제법 탐나는 시장이다. 하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한국은 K-팝·K-드라마·예능·웹툰 등 독자적인 콘텐츠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었고, 아시아·남미·유럽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왔다. 이제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미국 본토를 공략할 태세를 갖췄다. 거기에 E-스포츠, PC방, 카카오톡, 라인 스티커, BJ 등 IT 기술에 기반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개척해오기도 했다. 무턱대고 뛰어들기에는 까다롭고, 모른 척 무시하기엔 불안하다. 거기에 유료 만화, 음원, 영상 시장을 쉽게 파괴해온 ‘어둠의 경로’ 역시 골치 아픈 요소임에 분명하다.

넷플릭스는 제법 뜬을 들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2016년 한국에 상륙했다. 진출 초기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일부 마니아를 위한 놀이터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2017년부터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본격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8년 들어 유재석 등이 나오는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를 선보였고,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방영권 계약을 따내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회당 제작비 20억원 이상의 대작 <킹덤>을 사전 제작해 전편 동시 공개에 나서고, 빅뱅의 승리를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 <YG 전자>도 내놓는다. 지난 6월 17일 한국을 찾은 넷플릭스 유추양극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수출 채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으로 중국 등 한류 시장을 우회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하면 세계 190여 개국에 이르는 수출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유혹



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 줘서는 곤란하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 성장과 나의 문화생활의 관계성

문제는 플랫폼이다. 한국에서도 매력적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의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V라이브는 방탄소년단, 엑소, 트와이스 등 K-팝 스타가 팬들과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다. 2018년 1분기 다운로드 수는 4600만명이고 그중 해외 접속자 비중이 80%에 달한다. 무료와 유료로 결합한 한국형 웹툰 플랫폼도 해외시장에서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일본에서 라인 메신저와 손잡고 만화 플랫폼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웹툰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만화가를 다른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CJ E&M은 BJ라 불리던 개인 방송 스타를 영입해 아시아 최대 멀티채널 네트워크(MCN)를 구축했다. 최근엔 커머스와 콘텐츠를 융·복합한 CJ

ENM을 출범시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 M은 BH엔터테인먼트(이병헌, 김고은 등 소속), 제이와이드컴퍼니(김태리 등 소속), 쇼엔터테인먼트(공유, 공효진, 전도연 등 소속)와 협업하며 한류 영상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문화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괴수들의 합병과 변신이 내가 즐기는 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를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화를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넷플릭스 앤 칠(Netflix and chill?)” 라는 말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라면 먹고 갈래?” 정도일까? 연인들이 넷플릭스를 보며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남자가 집 안 소파에 앉아 케이블 채널을 돌려가며 철 지난 영화를 보는 것은 매우 궁상맞은 데이트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집 안에서 초고화질과 실감 나는 사운드로 <기묘한 이야기>나 <빨간머리 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는 것을 근사한 문화생활로 여기고 있다. 만약 거실 TV를 누군가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들고 ‘나만의 섬’으로 탈출한다.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가 시청률 60%를 넘던 시대는 다시 올 수 없다. 드라마 제작자의 황금시대는 사라졌다. 하지만 콘텐츠 기업은 다른 꿈을 꾸다. 시청자의 60%가 동시에 한 작품을 볼 필요는 없다. 그들이 제작각 콘텐츠를 즐기더라도, 모두 자신의 플랫폼 안에 있게 하면 대 성공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5년 동안 9200만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그리고 그 수는 2020년까지 2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그들이 전혀 다른 플랫폼의 고객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20세기 왕, 귀족, 백만장자보다 훨씬 다채롭고 자신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취향만 확고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끝없이 흥미로운 콘텐츠를 공급받아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것이 너무 많아 고민해야 한다.

한여름 낮밤의 낭만을 펼치다

발 아래 지면의 세상이 펼쳐진다. 낮선 시야에 탁 트인 해방감을 느끼자 어디선가 상상한 자연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곳에서 즐기는 맛있는 커피, 아름다운 전망까지 더해진 '루프톱 카페'가 인기다.

남산의 야경이 눈 아래 피피서울

남산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하는 시티 뷰. HAPPY, SHOPPING, FLOPPY, HAPPENING의 PP를 따서 이름 지었다. 오후에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드 인테리어와 그 사이로 펼쳐지는 하얀 천이 이국적 분위기를 풍긴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에도 취해본다. 낮과 밤의 매력이 상반되게 공존하는 곳, 열대 과일을 이용한 트로피컬 칵테일과 태국식 타파스, 그릴 메뉴 등을 즐기며 한여름 밤, 도시의 낭만을 만끽해보자.

- 📍 서울 용산구 소월로44가길 3
- 🕒 14:00~24:00(월요일 휴무)
- ☎ 02-749-9195 📱 facebook.com/ppseoul

을지로 원조 루프톱 음식점 다전식당

을지로 청계상가 3층,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식당. 원조 루프톱 음식점이라 할 수 있는 다전식당이 그 주인공이다.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상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맛있는 밥집으로, 무엇보다 3층 덕을 활용한 야외 공간이 눈에 띈다. 날씨 좋은 날이면 세운상가와 청계천 방면을 내다보며 한끼를 든든히 먹기 더없이 좋다. 돈가스, 전골, 덮밥 등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는 재미와 한상 가득한 푸짐한 인심은 덤이다.

-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청계상가 바 301
- 🕒 9:00~21:00(일요일 휴무)
- ☎ 02-2264-0331

유럽식 정원을 만끽 프로젝트 힐사이드

경기도 광주 신현리 산꼭대기에 위치한 프로젝트 힐사이드, 넓은 대지에 홀연히 자리한 2층 건물에서 유럽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이곳의 루프톱에는 유럽식 온실 정원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부럽지 않다. 빵 맛도 좋다. 바삭한 식감과 벨기에 초콜릿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팔미카레가 인기 메뉴로 더치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 불가한 노 키즈 존으로 운영한다.

-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280-59
- 🕒 11:00~21:00(월요일 휴무)
- ☎ 010-9402-5487

대구 도심 속 스카й뷰 에이플레인

대구 대봉동 김광석거리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핫 플레이스. 루프톱 카페 에이플레인(A-PLANE)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새하얀 미니멀 인테리어는 심플함 그 자체다. 루프톱 자리에 앉거나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자니 그 이름처럼 여기가 비행기 안인지, 천국인지 헷갈린다. 마스터의 감각적인 커피는 물론 에이플레인만의 콜드 브루를 음미할 수 있다. 6층에 자리한 만큼 대구 시내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너머 잔잔히 흐르는 금호강의 줄기 선천과 대봉교가 정면으로 보인다.

- 📍 대구 중구 동덕로 36-15
- 🕒 12:00~24:00
- ☎ 053-257-5535

탁 트인 바다를 보며 힐링 카페루프탑

탁 트인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나 맥주 한잔의 여유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청사포에 위치한 카페루프탑에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곳은 실내와 테라스로 구성해 계단을 통해 한 층 올라가면 광활한 바다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해안길을 사이에 두고 동해와 남해의 교차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곳. 덕분에 푸른 바다 위 빨강고 하얀 청사포 등대를 조망하는 것도 매력이다. 알록달록 색감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는 SNS 핫 플레이스로 명성이 높다. 노 키즈 존으로 운영하니 참고하자.

- 📍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139-4
- 🕒 11:00~22:00(월요일 18:30까지)
- ☎ 051-702-3007





작은 섬이 주는 잔잔한 힐링

일본 오키나와 세 개의 섬 - 고힌마지마·다케토미지마·미야코지마

서울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반, 드디어 해변에 도착한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다.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왔고 당분간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키나와니까. 세상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물빛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깐.



OKINAWA

Naha

Kohama

Taketomi

Miyako

아시아의 하와이,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 아니 섬들의 모임이다. 가장 큰 섬인 오키나와섬을 중심으로 160여 개의 섬이 모여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1°C. 겨울에도 16.8°C를 유지하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기후인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오키나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평화와 여유처럼 오키나와인들은 순하고 낙천적이다.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뜻인 '난쿠루 나이사(なんくるないさ)'라는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키나와를 여행 하면 대부분 오키나와의 중심 도시 나하가 있는 본섬의 리조트에 머물며 렌터카를 이용해 섬을 돌아본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에 떨어진 작은 섬을 찾는다. 고타지마, 다케토미지마, 미야코지마(이하 고타마, 다케토미, 미야코)가 그들이 즐겨 찾는 섬들이다. 지마(じま) 또는 시마(しま)는 일본어로 섬을 뜻한다. 출발점은 이시가키. 나하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410km를 다시 날아가야 닿는 곳이다. 그곳을 베

이스캠프 삼아 고타마와 다케토미, 미야코를 모두 즐길 수 있다. 이시가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풍경은 우리나라 제주도과 비슷하다.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크고 작은 돌로 담을 쌓았다. 등성등성 대충 쌓아 올린 것 같지만 웬만한 태풍에는 끄떡없다고 한다. 이시가키 공항에 비행기가 닿을 무렵, 창밖으로 보이는 물빛에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짙은 초록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바다, 그 바다 아래로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사람들이 왜 이곳을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부르는지 절로 이해가 된다.

고타마지마의 기분 좋은 바람과 만나다

이시가키를 나와 첫 목적지인 고타마지마(小浜島)로 향한다. 이시가키 선착장에서 고속 페리를 타고 25분을 가면 닿을 수 있다. 내리는 이들 가운데는 골프 백을 든 이들도 보인다. 고타마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일본의 최남

1. 류큐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호시노야리조트
2. 별모래 해변이라 불리는 호시즈나 해변에서 별모양 모래를 찾는 사람들
3.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전통 조각상 시샤
4. 다케토미는 인구 300명 남짓의 아주 작은 섬이다
5. 해 뜰 무렵의 고타마 해변 서핑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
6. 다케토미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 좋다
7. 투명한 고타마 바다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노클링이다

단 골프장이라고 한다. 바다를 향해 티샷하는 9번 홀과 일본 최서단(12번), 최남단(7번) 앞에서의 기념 촬영은 필수다. 고타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이다.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 가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는데 이 바위가 다이빙 포인트다. 물이 너무나 맑아서 보트의 그림자가 해저에 그대로 비칠 정도다. 드라이 슈트를 입고 오리발을 차고 수경을 쓰고 바다로 텀벙 뛰어들다. 수중에는 알록달록 다양한 열대어와 독특한 모양의 산호초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함께한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는 이곳은 스쿠버 마니아들이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자랑이다.

완벽한 휴식의 섬, 다케토미지마

다케토미지마(竹富島)는 섬의 넓이가 고작 5.42km²밖에 되지 않아 아담하다. 제주도에 떨어진 섬 우도(6km²)보다 작다. 이 섬에 살아가는 인구는 고작 300명 남짓. 하지만 연간 관광객 수가 무려 40만명에 달

한다. 오키나와는 600년 전 류큐 왕국이라는 엄연히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었다. 다케토미는 일본에서도 전통 류큐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손꼽힌다. 붉은 기와로 만들어진 집과 하얀 모래를 깔아놓은 길 등 이곳에서 만나는 풍경은 일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은 돌담이다. '굿쿠'라고 부른다. 제주도의 돌담과 꼭 닮았다. 집들은 이 돌담 사이에 숨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돌이 아니라 산호다. 돌담 사이로 난 길은 하얀데, 그것 역시 산호다. 애초엔 하얗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때를 타서 검게 변했다. 다케토미는 해저가 웅기하면서 산호가 솟아올라 만들어진 섬으로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호인 셈이다. 집과 집을 잇는 길은 반듯하지 않은데, 이는 거센 바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케토미를 여행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첫 번째는 관광용 몰소 달구지를 타는 것. 몰소가 끄는 오래된 달구지를 타고 느릿느릿 마을 곳곳을 돌아본다. 서라,



'가라' 등 주인 말을 알아듣는다. 주인은 두런두런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붉은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여 골목을 이룬 모습이 웬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자전거로 섬을 돌아보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호시즈나 해변이다. 별모래 해변이라 불린다.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가 정말 별처럼 생겼다. 이는 별 모양의 유공충 껍질이 말라 모래와 섞인 것. 밤에도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 해변을 찾은 여행객들은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별모래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물빛이 가장 투명한 섬, 미야코지마

마지막 여정은 미야코지마(宮古島)다. 미야코의 자랑은 투명한 물빛이다. '미야코 블루'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특유의 맑고 아름다운 빛깔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 바다 빛이 가장 맑다고 한다.

미야코의 절경은 섬의 동남단에 위치한 히가시헨나자키(東平安名崎)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동그란 바위들이 떠 있다. 바다를 향해 2km가량 길게 뻗은 육지의 끝에는 흰 등대가 바다를 보며 서 있다. 히가시헨나자키는 일본 100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미야코 어디서든 이 절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특히 스나야마 해변, 이케마 대교가 미야코의 경치를 느끼기 좋은 장소다.

돌아오는 길에는 나하에 들러보자. 그래도 오키나와의 본섬을 빼먹으면 섭섭하다. 나하 시내에 자리한 슈리 성은 류큐 왕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건축양식이 전혀 다른 북쪽 궁전과 남쪽 궁전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쪽은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건물, 다른 한쪽은 붉은빛이 도는 중국풍이다. 중개무역을 하던 작은 왕국이 실리 외교를 펼치면서 생겨난 특징이라고 한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모두 불타버렸으나 일부를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 지난 1992년 슈리 공원으로 개원했다.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맛있는 오키나와

오키나와에는 독특한 먹을거리가 많다. 유키시오(雪鹽·눈소금)는 미야코의 특산 소금이다. 바닷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소금과 달리 입자가 곱다. 기네스북에 등록되었을 만큼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 강한 햇볕과 스킨롤로 인한 높은 습도로 지치거나 무기력할 때 이 소금 사탕과 흑설탕이 특효약이라고 한다.

오키나와 소바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본토와 조금 다르다. 보통 소바 하면 메밀이 30% 이상 들어가는데, 오키나와에서는 100% 밀가루로 만든다. 그래서인지 모양이 우리나라의 칼국수와 닮아 있다. 하지만 식감은 조금 더 단단하다. 밀가루 면이지만 잘 퍼지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국물은 더 특별하다. 돼지고기 육수에 가쓰오부시 육수를 일정 비율 섞어 만들기 때문에 기름기가 거의 없어 깔끔하고 담백하다. 여기에 국물에 달짝지근하게 양념이 밴 갈비나 삼겹살 등을 얹어 먹는데, 짭조름한 맛과 담백함이 어우러져 일품이다.

애주가라면 길쭉한 남방미로 만든 증류주인 오키나와 전통술 '아와모리(泡盛)'를 놓칠 수 없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주인 쌀소주다. 오키나와 현에 50여 개의 양조장이 있다. 아와모리는 알코올 도수가 25~50도로 높아서 보통 물과 얼음을 섞어 마신다.

오키나와를 떠나는 길,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니 기타노다케시의 영화 <소나티네>가 이해됐다. 도쿄의 야쿠자 보스가 왜 삶의 마지막을 오키나와 바다에서 끝내려 했는지, SBS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주인공이 왜 오키나와 바다를 찾아갔는지를. 쏟아지는 햇살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이 바뀌는 푸른 물빛, 그 위로 순간순간 밀려와 미간을 간질이는 미풍, 모든 걱정을 거품으로 만들어 사라지게 할 것 같은 파도 소리, 그 바다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맑아진다. 난쿠루 나이사, 난쿠루 나이사...

- 8. 오키나와의 중심 도시 나하에 자리한 슈리 성. 류큐 왕국의 옛 영화를 짐작할 수 있다.
- 9. 오키나와 전통 소바.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칼국수와 비슷하다.
- 10. 오키나와 시내에서 펼쳐진 축제 행렬
- 11. 다양한 모양의 시샤인형
- 12. 일본에서 가장 맑은 물빛을 자랑하는 미야코

여행 정보

아시아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 일본항공(JAL) 등을 이용해 오키나와에 갈 수 있다.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맥주는 오리온이다. 오리온 맥주 공장에 가면 무료 견학과 함께 시음도 할 수 있다.



12 쏟아지는 햇살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이 바뀌는 푸른 물빛, 그 위로 순간순간 밀려와 미간을 간질이는 미풍, 모든 걱정을 거품으로 만들어 사라지게 할 것 같은 파도 소리, 그 바다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맑아진다. 난쿠루 나이사, 난쿠루 나이사, 난쿠루 나이사...



보물 창고처럼 숨어 있던
얼음 창고
아카이브카페 빙고



개항기 흔적이 남아 있는 인천 중구 신포동의 좁은 골목길 이곳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 오랜 시간 어떤 사물이든 품었던 공간, 아카이브카페 빙고는 그렇게 살았다.

얼음 창고의 골목길 그림자

빙고(氷庫)는 본디 얼음 창고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20년대 개항장(開港場) 일대의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14평 남짓한 이 얼음 창고는 수탈의 역사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개항장은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해 개방한 제한 지역이었던 만큼 과거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조계지 또한 이곳에 있었다. 1882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제물포조약으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자, 개항장이 있던 인천에 앞다투어 열강들의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조계지란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리던 구역. 서구의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였지만 동시에 조선을 착취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곳으로 이용됐다. 1883년 처음 일본 조계지가 생긴 이래 청나라,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조계지가 차례로 생겨났다. 지금은 문화 관광지가 된 차이나타운에 들어서는 계단을 중심으로 동쪽은 '왜관'으로 불리던 일본 조계지가, 서쪽은 '청관'으로 불리던 청나라 조계지가 자리했다. 아카이브카



페 빙고는 일본 조계지가 있던 작은 골목에 자리했다. 차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과 함께.

영원의 바람을 담아

물(水)이 영(永)원하면 얼음(氷)이 된다. 어쩌면 얼음은 물의 영원을 바라는 것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 1920년대 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마포나루터에서 싼고 온 귀한 얼음은 14평 공간에 차곡차곡 쌓였다. 예로부터 얼음은 귀했다. 지금에야 사시사철 냉장고에서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지만, 조상들은 겨울에 채집한 얼음을 두고두고 보관해야 무더위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얼음을 채취해 저장해 했으며, 이 일을 맡은 관청을 빙고전(氷庫典)이라 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빙고는 정식 관청으로, 얼음의 공급은 <경국대전>에 엄격히 규정될 만큼 중요한 국가 행사였다.

그렇게 귀한 얼음을 보관하던 인천의 빙고는 시대에 따라 과도기를 맞았다. 신포동 일대가 인천항에서 들어온 외국 인 선원이 즐겨 찾는 술집 거리가 되자 한때는 클럽의 주류 창고로, 어느 때는 책 창고로 사용됐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두는 곳으로 쓰인 빙고는 신포동 일대의 쇠퇴와 함께 후미진 골목에 버려졌다. 쇠락한 골목길의 그저 그런 벽돌 건물 한 채. 그렇게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그런 빙고가 재생 건축가로 활동하는 이의중 건축가와 만나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순환,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

처음 이의중 건축가가 빙고를 방문했을 때, 이곳은 바닥이 깊고 숯과 소금이 많이 깔려 있었다. 나무와 벽돌에는 황토가 덧대어 있었고, 천장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많이 낮았다. 그가 그런 빙고를 선택해 다시 살린 이유는 분명했다. 한국의 오래된 건축물에 숨결을 불어넣고 싶었던 것. 100년 된 얼음 창고를 옛 모습 그대로 후대에 가지 않는 공간으로 물려주고 싶었다. 빙고가 자리한 동인천은 역사와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물이 많았다. 원형 그대로 지붕과 벽을 최대한 살렸고, 쇠로 만든 출입구도 옛 모형 그대로 만들었다. 나무와 흙 등 자연에서 오는 재료를 충분히 사용해 옛것과 새것의 경계를 줄였다. 그렇게 빙고는 과거의 이야기를 품은 쓸모 있



는 카페로 재탄생했다. 물은 얼음으로, 얼음은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순환. 순환의 성질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건축에도 있었다. 그 순환의 띠를 만드는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사람과 사람의 이음터, 아카이브카페 빙고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으로 둘러싼 외관과 달리 이늑한 느낌이다. 한쪽 벽면에는 이곳이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였음을 증명하듯 냉기를 유지하던 두꺼운 돌담이 빼곡하다. 신발을 벗고 뼈격대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다. 다락방이다. 작은 유리창으로 바깥의 환한 빛이 들어온다. 천장에서부터 줄을 타듯 내려온 백열전구는 빙고의 감각을 더한다.

소규모 독서 모임을 위한 1층의 긴 나무 테이블 위에는 인

천을 이야기하는 책이 톡톡 놓여 있다. 이곳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는 평범한 카페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즐거운 일을 펼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주인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가만 보니, 빙고로 들어서는 철문 옆에 '동네 소식' 알림판이 있었다. 기록 보관소를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카페 이름에 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순환의 또 다른 의미를 이음이라 부르고 싶다.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도시를 이어주는 매개체, 아카이브카페 빙고가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란다.

- 아카이브카페 빙고
- 인천 중구 개항로 7-1
- 낮 12시~오후 6시(매주 목요일 휴관)
- 032-772-3338

The-K와 함께 떠나는, 8월 문화가 있는 날



러브 스토리 명작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가슴을 울리는 멜로와 감미로운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다시 돌아왔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프란체스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을에 온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이룰 수 없는 가슴 시린 사랑을 그린다. 러브 스토리이만큼 감미로운 넘버와 아름다운 무대가 어우러져 운명적인 사랑을 마주한 두 남녀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릴 예정이다.

- 📅 **일시** 8월 11일(토)~10월 28일(일)
- 📍 **장소** 샤롯데씨어터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삶의 정서가 녹아 있는 우리 춤의 역사 천년의 유산

경기도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천년의 유산>은 김정학 예술감독이 이끄는 대극장 규모의 첫 레퍼토리 공연이다. 30여 가지 작품을 흐름에 맞게 구성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공연으로 무고가인전과 동래학춤, 부채춤, 훈령무를 비롯한 아홉 가지 전통무용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리즈 탄생 10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한층 더 웅장해진 무대와 화려한 의상을 선보인다.

- 📅 **일시** 8월 11일(토) 오후 5시
- 📍 **장소** 상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 **관람료** 전석 1만원



CLASSIC

장두건 탄생 100주년 기념전 삶은 아름다워라!

우리나라 구상미술 1세대 작가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큰 자취를 남긴 고(故) 장두건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삶은 아름다워라(La Vie en Rose)>가 열린다. 장두건 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에서 서정적 사실주의 화가로서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지역 미술의 근간을 물려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대형 전시로 회화, 드로잉을 비롯해 그의 대표 작품 90여 점과 아카이브 50여 점을 전시한다. 자연에서 얻은 생명의 빛을 화폭에 담아낸 그의 예술 세계를 만나보자.

- 📅 **일시** ~9월 9일(일)
- 📍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 💰 **관람료** 무료



EXHIBITION



자유로운 기쁨의 에너지와 날카로운 통찰 니키 드 생팔展 마즈다 컬렉션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현대작가로 본인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니키 드 생팔. 이번 전시는 그의 첫 단독 전시로 '사격회화' '나나' 연작, '타로공원' 등 세계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127점을 소개한다. 생전 작가와 직접 교류한 일본 니키 미술관의 요코 마즈다 시즈에 전(前) 관장의 소장품으로 꾸며지는 전시로 그들이 나누는 우정도 엿볼 수 있다.

- 📅 **일시** ~9월 25일(화)
-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 **관람료** 성인 1만4000원 / 청소년 1만원 / 어린이 8000원 / 유아 6000원

EXHIBITION

여름휴가 시즌, 알뜰 여행을 떠나보자!

작년 한 해 관광 관련 수입은 133억 2370만 달러. 전년 대비 22.5% 감소한 반면 지출은 270억 7290만 달러로 14.3% 증가하며 관광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소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자연·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낭만과 힐링, 행복을 누리고자 먼 곳으로 떠나려는 욕구는 갈수록 강렬해진다. 더욱이 8월은 이러한 여행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알뜰한 여행 방법을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여행 자금 모으기

미리 계획하고 소비하는 것과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리 여행 자금을 대략 산정한 후 필요 자금을 모아 여행을 간다면 큰 이자는 아니더라도 한 끼 식사 이상의 작은 수입이 더해져 한층 여유롭다. 그러나 카드나 대출로 선지출을 하면 오히려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둘 사이의 갭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여행을 선호하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트렌드에 맞춰 일부 은행은 고금리 여행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준금리 1.5% 대비 12개월 기준 4.7%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적금도 있다. 물론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나 카드 사용 여부가 필요하지만 여행 적금을 떠나 대부분 금융권이 기본 금리에 더해 실적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고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 무한정 납입 액수를 늘릴 수 없어 50만원 이하 등 월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50만원이라도 1년 이상 불입하면 여행 경비로는 그리 무시할 수 없는 목돈이 된다. 여행 적금을 적극 활용하며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 자금 마련을 해둔다면 과거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

알뜰 여행 준비하기

직장인들이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고 싶은 곳으로 대부분 국내 여행을 꼽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지 적자를 보더라도 여름휴가 시 해외가 국내 선택도를 넘어설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에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좀 더 실속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 구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경우 다섯 달 전에 예약해야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국가별로 저렴한 항공권 구입 시기를 일일이 알아두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치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소 세 달 전에는 구입해두자. 특히 7월 말과 8월 초는 초성수기로 항공권 가격이 비싸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한다. 참고로 1년 중 해외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달은 항공권 가격이 가장 저렴한 3월이고, 이어 11월과 6월 순으로 비행기 표가 싸다. 휴가 기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경비를 아낄 수 있다.

모바일 환전은 필수다.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의외로 비싸다 보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환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나 엔화, 유로는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90% 가까운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 특히 돈을 찾을 지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환전이 가능하고, 공항에 해당 은행이 있으면 출국길에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 환전 가능한 액수

나 출발 당일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해외여행 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본다. 보험료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만큼 비용보다는 귀찮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비교 검색을 하면 자신에게 맞는 저렴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뿐더러 바로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 이외에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 책임 손해 등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꼭 챙겨두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셋째는 알뜰한 **면세점** 쇼핑이다.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이제는 해외여행의 필수 코스로 인식된다.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여권과 항공권은 꼭 챙기고 가고자 하는 곳의 면세점 이용 시간도 체크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3000달러지만 입국 시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포함해 60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면세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하려면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쿠폰이나 적립금을 활용하고, 면세점 VIP 카드를 발급받아 추가로 5~10% 할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구성 기획 상품이나 대용량 제품 등을 미리 알아놓으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해외여행 시 카드 사용 유의점

요즘은 대부분 여행자가 현금 대신 휴대가 간편한 카드를 사용한다. 여행 특화 카드를 활용해 항공권, 숙소, 면세점, 렌터카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알뜰 여행의 필수다. 그리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3~8%의 높은 수수료가 더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원화 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없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도록 미리 수정하면 된다.

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되도록 해외여행에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고 카드 사용 내역을 즉시 문자로 받아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카드 피해 발생 시 해외에서는 재발급받기도 어렵고 소비할 때도 불편함이 크기에 여분의 카드를 하나 더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최지만 경기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
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
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
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
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
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숲에서의 치유, 그리고 다시 찾은 청춘 The-K 은빛동행 ‘홍천 숲 힐링 투어’

힐링과 여유를 이야기하는 시대지만, 사실 도시민에게는 가깝고도 먼 단어일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녹음이 무성한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의 하루를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다. 역수같이 쏟아진 비가 그친 다음 날, 잣나무가 울창한 강원도 홍천 숲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과 함께해 더욱 행복했던 하루를 공개한다.

힐링을 위해 출발

지난 6월 27일 오전, 돌씩 짝을 지은 사람들이 차츰 서울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싱글벙글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들은 ‘The-K 은빛동행 홍천 숲 힐링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들이다.

오늘 이들이 함께 방문할 곳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남짓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강원 홍천군 힐리언스 선마을이다. 힐링(healing)과 사이언스(science)의 합성어인 ‘힐리언스(Healienc) 선마을’은 아름다운 숲속에서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 10대 관광 코스 치유 투어’ 중 한 곳이다.

단 한 명의 지각생도 없이 예정된 시간에 모두 모인 회원들이 교직원공제회에서 마련한 관광버스에 올랐다. 오늘 숲 투어에 함께할 인원은 동반자를 포함해 총 60명.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신나게 홍천으로 내달렸다. 전날 폭우가 퍼부어 많은 사람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행사 당일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녹아내릴 듯한 폭염 또한 전날 빗줄기로 한풀 꺾인 모양새였다.

버스가 힐리언스 선마을 주차장에 도착하자 모든 회원이 각자 자기 짐을 들고 꽤 높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디지털 청정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병풍처럼 둘러진 숲이 보이는 마을... 이곳을 왜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라 말하는지 비로소 모두가 수긍하는 눈치였다.

숲, 명상, 치유

입춘 안내를 받기 위해 강의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먼저 교직원공제회 고객지원팀 박형석 팀장이 특별회원들을 뜨겁게 환영했다.

“여러분은 무려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타 공제회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행사가 바로 교직원공제회의 ‘은빛동행’인데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어느새 다가온 점심시간에 모두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힐리언스 선마을의 식사는 조금 특별하다. 식전에 디저트를 먼저 먹고 탁자 위에 놓인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떨어지는 30분간 천천히 식사해야 한다. 회원들은 화학조미료와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지 않은 친환경 건강 식단을 맛있게, 천천히 즐겼다. 식사를 마친 안종진 회원은 “간이 심심했지만 맛있게 먹었다. 음식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숲을 만끽할 시간이다. 먼저 숲 테라피를 위해 망이 달린 모자와 돛자리를 받아 들고 숲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



다. 줄지어 걷는 숲길은 전날 내린 비로 청량함과 상쾌함이 감돌았다. 흙냄새, 나무 냄새가 짙게 풍기고 뾰족한 잣나무가 피톤치드를 뿜어내니 숨을 쉴 때마다 심신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느낌이었다. 도착한 곳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숲 전체의 흐름을 만끽하고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한 시간 가까이 즐긴 회원들 얼굴에서는 평온과 여유가 한껏 묻어났다.

여유와 이완으로 더 행복해지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번에는 좀 더 코스가 긴 세로토닌 숲 워킹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오르막길과 평지가 번갈아 찾아오는 오솔길에서 계곡 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 아래를 향해 두 팔을 활짝 열어 심호흡을 하면서 걷는 길에는 세로토닌



MINI INTERVIEW

강성채 & 김경영 님



오늘 하루는 저희에게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까울 정도였어요. 간이 심심해도 정말 맛있었던 점심 식사, 친절하

스 등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2년 전 현직에 있을 때 다녀갔는데 다시 오니 행복한 노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해 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김봉건 & 남승현 님



은빛동행에 당첨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도심에서 오염된 몸을 자연에서 정화하니 무엇보다 좋았고요. 숲 테라피, 소도구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도 유익했습니다. 특히 늘 곁에서 내조해 준 아내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준 아내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박미정 & 최경순 님



저희는 교직에서 만나 30년 동안 우정을 쌓아 온 팀입니다. 오늘 체험 중 소도구 테라피와 숲 테라피가 정말 좋았는데 앞으로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비우고, 힐링하면서 내면을 좀 채워가

자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친구와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대화할 거리가 생겨 무척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직원공제회, 사랑해요!



The-K 행복서비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비보잉을 즐겨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라!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한창 자라는 청소년기에 접하는 문화는 종종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을 찾아가 '문화'를 선물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진부고 학생들 앞에 펼쳐진 비보잉의 세계.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무엇을 느꼈을까? <The-K 매거진>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나섰다.



과연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창 공연 준비로 바쁜 외중에 뜻밖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공연 소식을 들은 진부중에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고 요청해온 것이다. 판이 커졌다. 고교생과 중학생이 함께하는 공연이라니. 공연을 신청한 이경원 교사는 물론 모두의 발걸음과 손놀림이 더욱 바빠졌다.

윤재훈 안무가는 '융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난 리우 올림픽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 선수,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대도서관 이야기 등을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것, 포기하지 말 것,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것" 등을 열띤 목소리로 주문했다.



진부면이 들썩이다

지난 7월 9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진부고를 찾았다. 가늘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 더욱 청량하게 보이는 짙은 녹음이 도시의 고교와는 사뭇 색다른 느낌을 풍기는 곳, 아직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곳곳에 남아 있는 동네의 모습이 이채롭고 정겨웠다.

오늘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찾아가는 행복나들이'의 일환으로 진부고에 보낸 선물 꾸러미는 비보이 퍼포먼스 팀이다. 도시에서야 거리 공연이니 축제니 꽤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공연이지만 평창군 진부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접하기가 쉽지 않을 프로그램일 터. 들뜬 학생들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보곤 덩달아 살짝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얼마 전 리모델링을 끝내 깔끔하고 널찍한 진부고 체육관에는 일찌감치 도착한 공연 팀이 조명과 마이크를 세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슬쩍 리허설을 훑쳐보니 강렬한 비트박스와 묘기에 가까운 비보잉 댄스에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이날 공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도 함께 곁들여진다는 사실이었다.





비트박스, 비보잉, 새로운 세상과 조우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와글와글 밖에 몰려 있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입장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차곡차곡 메우더니 순식간에 체육관이 꽉 찼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몰린 학생들 때문에 장내를 정리하던 선생님들도 꽤나 당황한 눈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체육관이 암전되자 학생들 모두 떠나갈 듯한 함성을 질렀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를 맡은 이는 윤재훈 안무가다. 가벼운 몸풀기로 학생들과 먼저 단체 가위바위보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더니, 공연에 앞서 작품 한 편을 올리기에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음악을 선정하고 공연 콘셉트를 정하고 안무 창작,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올리는 과정 가운데 안무가의 역할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니 모두가 초롱초롱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첫 번째 무대는 비트박서가 장식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들숨과 날숨으로 현란한 비트박스를 만들어 보여주는 주인공에게 모두 열화와 같은 환호를 보냈다.

하나씩 소리를 쌓아가다가 무려 다섯 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내는 진기명기에는 함께 관람하던 선생님들까지 감탄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진 순서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린, 더구니스 팀의 비보이 크루. 총 4명이 등장해 독무와 합동 무대를 번갈아 보여주는데, 애크러배틱한 움직임에 모두가 홀린 듯 빠져들었다. 쿵쿵 체육관 전체를 울리는 신나는 음악 또한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지친 심신을 북돋우기에 충분했다.

댄서들이 서커스 같은 고난도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체육관에 모인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고 어깨와 몸을 들썩이니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웃다, 배우다, 마음에 남다

한바탕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전통 춤과 미디어아트 결합된 색다른 장르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윤재훈 안무가는 ‘융합’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지난 리우 올림픽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뇌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 선수,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대도서관 이야기를 등을 돌려주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것, 포기하지 말 것,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것” 등을 열띤 목소리로 주문했다.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라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 건 진부중고 학생들이었다. 사회자가 춤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나오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장내가 시끌벅적, 서로 등을 떠밀며 아웅다웅 난리가 났다. 그렇게 무대 위로 올라온 학생들은 여학생, 남학생, 국가대표를 꿈꾸는 스키부 학생까지 다양했다. 선보인 춤 또한 엉뚱하고 현란하기 그

지없어 말 그대로 체육관이 폭소와 박수로 뒤집혔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친구들이 뒤로 갈수록 부끄러움 없는 필살기를 선보이자 장내 환호는 점점 더 커졌다.

막판에는 비보이 크루까지 합세해 춤을 추고 근사한 엔딩 포즈로 마무리한 공연. 실컷 웃고 떠드는 동안 새로운 세상을 만난 학생들은 말 그대로 얼굴에 웃음꽃을 가득 담은 채 왁자지껄 체육관을 빠져나갔다. 시원한 빗줄기보다 더 상쾌했던 시간을 보낸 모두의 뒷모습에 ‘행복’이라는 그림자가 질고 길게 따라 붙은 하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덜 누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MINI INTERVIEW

고진식
진부고 교감



진부고는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입니다. 처음 비보이 공연 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이런 문화 혜택을 쉽게 접하기 힘들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쁩니다. 교육자로서 이런 공연은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도 풀었기를 바랍니다.

이경원
진부고 교사



대략 450명 정도의 학생이 공연을 지켜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 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오늘을 계기로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생활을 찾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학생들과 공연 팀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측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혜은, 박소정
진부고 2학년



오늘 공연요? 정말 재밌었어요. 비보이 공연은 그동안 TV로만 봐왔지 실제로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비보이 팀이 공연하러 온다고 해서 다들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비트박스나 춤을 본 것도 좋았지만 전통 무용과 영상이 결합된 새로운 융합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무대에 오른 친구들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이렇게 신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오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개최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8월 9일까지 신청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8일에는 디즈니 인 콘서트로, 9일에는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로 진행된다.

가족들과 함께 콘서트 관람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던 디즈니 인 콘서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피크닉석이 제공되며, 소프라노 조수미는 파리의밤을 테마로 로맨틱한 음악을 선보인다.

응모는 8월 9일까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으로 사회공헌단체에 회원 명의로 기부(연말 소득공제 혜택 제공)할 예정이다.

- 공연명 : 디즈니 인 콘서트
- 일 시 : 9월 8일 18시
- 초청인원 : 피크닉석 400명(1인 4매 제공)
로얄석 250명(1인 2매 제공)



- 공연명 : 조수미 콘서트
- 일 시 : 9월 9일 19시
- 초청인원 : R석 400명(1인 2매 제공)

특별회원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15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 은빛동행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II'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 개최되는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특별회원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선정된 회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서전을 출간하게 된다.

참여는 공제회 특별회원만 가능하며,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thehappy@ktc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정해 11월까지 자서전을 제작 완료하고, 12월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 출간 기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자서전 집필 노하우가 담긴 '나는 꽃' 또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를 증정한다.

8월 말 퇴직예정 공제회원 장기저축급여 청구 안내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2018년 8월 말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시·도지부 회원상담창구로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계상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받는 상품으로 세율 등에서 혜택이 큰 퇴직회원 전용 금융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시 단 1회만 가입할 수 있다.

☎ 문의 1577-3400

홈페이지 청구시	방문·우편 청구시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ktcu.or.kr) 인터넷청구 ⇨ 저축 '장기저축급여' ⇨ 급여청구 - 은행용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스캔해 (JPG, PDF파일) 첨부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기재 ※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 장기저축급여청구서 1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원본 대조필)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제출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15일까지 응모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회원 초청 행사가 광주와 대전에서 개최된다. 8월 15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당첨자는 8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 장 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일 시 : 8월 31일 19시 30분
- 초청인원 : 100명(1인 2매 제공) • 좌석등급 : VIP석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장 소 : 대전 예술의전당 아트홀
- 일 시 : 9월 14일 19시 30분
- 초청인원 : 100명(1인 2매 제공) • 좌석등급 : VIP석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 특별회원 초청

한국교직원공제회는 8월 29일 The-K호텔서울에서 특별회원을 위한 The-K 은빛동행 '청바지 콘서트'를 개최한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청바지)'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에는 7080세대 인기 가수가 출연해 추억이 가득한 흥겨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공제회 특별회원(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회원)만 가능하다. 8월 중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3400)에서 응모 가능하다.



The-K Family

The-K손해보험, 8월 31일까지 초성맞이기 이벤트



The-K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에듀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초성맞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www.educar.co.kr)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누르고 초성을 입력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GS칼텍스·홈플러스 3만원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이다.

한편, 에듀카는 8월에 자동차보험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산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GS칼텍스 주유권, 신세계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

The-K호텔서울, 도심 속 '호캉스' 패키지

The-K호텔서울은 양재시민의숲, 양재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다. 이번 여름 '호캉스(호텔+바캉스)'를 계획 중이라면 The-K호텔서울이 8월까지 판매하는 '서머 힐링 패키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패키지 A는 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이다. 또한 분수광장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BBQ 비어 파티'를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우천 시 운영하지 않는다. 디럭스 룸 1박과 BBQ 비어 파티 2인 쿠폰을 제공하는 'BBQ 비어 패키지'도 17만원에 판매한다.

한편, 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을 맞아 보양 음식과 제철 요리도 선보인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우첼로는 장어구이덮밥·베네치아식 바닷가재 요리·블랙 누들 파스타를, 뷔페 레스토랑 더파크는 한방 삼계탕, 소고기찜, 사삼더덕죽 등을 출시했다.

☎ 문의 02-571-8100



The-K호텔경주, 서머 스페셜 패키지 출시



The-K호텔경주는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공제회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서머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12만5000~18만원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야외 수영장 2인 이용권은 14만7000~20만2000원이다.

또한 9월부터 한 달 동안 '가을마중 패키지'도 새롭게 선보인다.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공제회원은 정상가보다 55% 할인된 9만5000~1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주 보문단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온천 전용 복합 휴양 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또한 야외 수영장을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 문의 054-745-8100

라마다프라자제주, 풀사이드 파티 개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8월 4일과 25일 오후 8시부터 DJ와 함께하는 '라마다프라자 서머 풀 파티 2018'을 개최한다. 야외 수영장에서 열리는 이번 파티는 레트로 팝과 그루브, EDM 등 신나는 DJ 음악으로 꾸며지며 시원한 생맥주 한 잔과 소시지 바비큐 1개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1만5000원.



특별한 여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서머 온 보드(Summer on Board)' 패키지도 출시했다. 스탠다드 객실 1박과 호텔 수영장에서 즐기는 풀사이드 바 2만원 이용권, 조식 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ramadaje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064-729-8100

All that **빙수!**

The-K 매거진 8월 즉석당첨 이벤트

빙수야~ 빙수야~ 여름을 부탁해!
시원한 빙수를 300명에게 씁니다

이벤트 기간
8월 1일~31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8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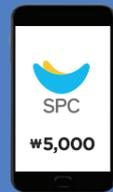
300개

실빙 (팥인절미실빙)



100개

또 다른 옵션 하나
SPC 상품권 (5천원권)



100개

또 다른 옵션 둘
GS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오기제 또는 미가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9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의 뜨거운 거리

유독 8월호는 뜨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리니하게 언제나 물을 동반했지만 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이기호 교수님을 만나러 간 광주, 심지어 이현지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까지도. 어느 촬영을 가도 비바람을 몰고 다녔습니다. 태풍과 장마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특히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날은 억수같이 내리던 장맛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운전대를 잡은 이선재 선생님과 한상무 실장님께 지면을 통해 심심찮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곳에 있어도, 이곳저곳을 다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과 함께한 시간과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테니까요. 김영민 선생님, 오경진 선생님, 이선재 선생님과 함께한 딱 찬 1박 2일의 시간은 그러했습니다.

여태껏 선생님들이 지낸 33년이라는 시간에는 어쩌면 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그 거리를 뜨겁게 메울 정도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말입니다. 틈만 나면 장난기 섞인 말로 서로를 아껴주신 것도요.

그런 선생님들께 또 다른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서 내심 행복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비와 함께 말입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과 뜻깊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담한 문자 안에 선생님들의 배려와 웃음과 그리고 애정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도 찾아오게끔(?) 예쁘게 만들어달라던 선생님들의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뻐서 정말 첫사랑이 찾아오면 어쩌죠? 하하. 남해 바다를 보러 꼭 놀러 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 그 약속 정말 지킬지도 몰라요. 먼 거리를 또다시 뜨겁게 만들러 말입니다.

